

5/2/15

설교 제목: 도마의 신앙 고백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복음 20:24-29

(요 20: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절관주** 요 11:16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절관주** 요 20:20, 막 16:11

(요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절관주** 눅 24:40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절관주** 벰전 1:8

우리는 지금 부활 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 일 (The Great Fifty Days)'이라 불리는 기쁨과 환희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이 금지되었으며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강림절, 사순절보다 더 오래 전부터 '호멜절(Omer Days)'로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에서는 다른 절기는 잘 지키는데 유독 이 절기를 소홀히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사순절에 이어 부활절 하루로 부활에 대한 모든 행사를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절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환란에 대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절기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머무셨던 40 일간 하셨던 행적과 그 의미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돌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도마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신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2 천여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내려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해서 믿을 수 있지만 (아직도 못믿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무덤 밖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다가 뜻밖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두 제자들, 그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을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이다" 에 버금가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도마에 대해 품고 있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먼저 도마라는 인물의 기질과 성향을 보겠습니다.

도마의 진짜 별명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의심쟁이가 아니라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별명으로 보아 그가 쌍둥이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은 현실주의자이자 실증주의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제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나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도마에 대해 변명을 해 주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에 대한 성경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본문을 포함해 몇 군데 있는데 요한복음 11 장과 14 장입니다.

먼저 11 장을 보시겠습니다.

11 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고도 무슨 연유이신지 바로 쫓아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며 그제서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 11: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말이 '가실려면 진작 죽기 전에 가시지 죽고 난 후 이제 가도 별 수 없는데 그 위험한 지역에는 왜 들어갑니까?' 라는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전장인 10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셔서 잡히실 뻔 했습니다.

지금 겨우 그들을 피해 요단강 저편, 세레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나가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위해 뭐하러 죽을지도 모를 유대 땅에 다시 들어
가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또 14 장을 보시겠습니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 14: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어 죽으신 후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마가 맞받아 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알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아서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없이 있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도마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도마를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도마의 이같은 현실주의자요, 실증주의자인 모습이 웬지 꼭 밋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보면 그는 진실을 확실히 알고자 했던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마가 소위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오늘 본문 24~25 절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도마만 빠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 후 도마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주를 보았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성격대로 제자들이 만난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가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의 이 말이 의심을 해서라기 보다는 그 사실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신지 8 일후 다시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유대식 계산 방식으로 8 일 후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일주일 후가 됩니다.

유대식은 우리식같이 이튿날부터 계산하지 않고 당일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8 일이 지났다는 말은 일주일 후,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로부터 한 주가 지난 주일이었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 정확히 일주일 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모였던 자리에 다시 모여 있었고 이 날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다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닫힌 문을 통과하여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이날 방문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계시지 않으셨을 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을 들으시고 도마의 그 의문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제자들, 특별히 도마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은밀하게 하는 모든 행동, 마음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기 원하십니다.

3.예수님은 도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버렸던 도마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자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서야 믿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도마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했는가? 말입니다.

도마 자신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에 놀라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원했던 대로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확인하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까?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 상처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만약 이시간 여러분의 심령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죽어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라 비틀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심지어 돌 같이 굳어져 있고 얼음같이 차가워져 있을지라도 도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어느새 촉촉한 은혜의 샘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리를 배우고 깨닫고, 교리를 실천하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어 있고 메마른 심령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4. 도마의 신앙 고백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드디어 도마의 입에서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16:16 에서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에 버금가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중에서 이 도마의 고백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을 왜 그토록 탁월한 최고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는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의 입에서 바로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지껏 계속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바로 야훼(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며 당신 자신이 바로 야훼(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6:35; 8:12; 10:7, 11, 14; 11:25; 14:6; 15:1).

그런데 주님의 선언이 바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마의 고백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의미있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최정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0:29)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믿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도마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도마에게 바로 연이어 “너는 나를 본 고로 겨우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고백은 한 베드로에게 하신 칭찬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16:17)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6:18)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16:19)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고서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실 뿐 두 가지 믿음을 비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서술형으로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나를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자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확증해주신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5.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참으로 소망을 줍니다.

도마는 웬지 저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이 느껴지나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마음 깊은 심령에서 의심쩍어 하는 것, 답답해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 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믿음이 회복되거나 그리스도를 향한 불같은 사랑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같은 죄인을 죄인을 주님이 먼저 찾아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날마다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